

가정예배 안내서

1

1995

충현의 만나

창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

199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창세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도 제 목

1.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세해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신성중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5년 1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서 론

창세기의 명칭은 '그 대략의 책'이란 말에서 왔다. 그것은 창세기의 일부
분의 제목에서 온 것이다. 유대인들은 '태초에'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책의 목적은 구속사의 시작을 찾아내려는 데 있다. 또한 그 문체에 있어
운문이 아닌 산문체로 쓰여진 것은 역사적 기록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중심적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이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인간의 실패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것을 보
게 된다.

그래서 성경 중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창
세기요 다른 하나는 계시록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창세기도 사탄의 유혹
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계시록도 사탄의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
해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실패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
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한 달 동안 가정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자.

1

(주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찬송 / 40장 본문 / 창 1:1-3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1:1)

태초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가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그것은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1, 2절). 하나님이 곧 이어 6일간의 시간을 두고 각 개별적 사물과 사물 사이의 질서체계를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조성하셨습니다. 우주 창조의 6일간의 기간 중 전 3일은 배경을, 후 3일은 그 배경에서 주역으로 움직일 존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창조의 순서는 최후의 인간 창조를 정점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조성이 치밀한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자요 인류의 구속자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연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정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또 인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야 인간이 창조된 사실은 인간이 창조의 최종 목적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며 우주의 주인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창조된 우리들에게 새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까? 우주창조가 질서있게 이루어진 것같이 새아침을 맞이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하나 질서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하는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2:17)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우주의 독보적인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맺은 행위언약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는 특권과 각종 실과를 임의로 먹는 자유가 주어진 인간에게 단 한 가지 금지 명령이 엄숙한 경고와 더불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요, 그것을 먹게 될 경우 정녕 죽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하면 만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위언약이라고 합니다. 즉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행위 여부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행위언약의 목적은 결코 인간을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는 법을 깨달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 기도 /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계속 쓰임받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2:24)

본 단락은 두 사람의 행복한 결혼으로 최초의 가정이 형성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혼제도의 창시자요 최초의 결혼예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례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결혼의 3대 원리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독립성입니다. 결혼이란 육체적, 인격적으로 책임있는 존재로서 이제 상호 부모로부터 홀로 서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혈연의 완전한 단절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성숙과 편의와 경제와 거주와 관점에서의 떨어짐을 가리킵니다. 둘째로, 연합성입니다. 이것은 유기적 두 인격체가 상호협력함으로 같은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신뢰와 인정과 인내와 헌신을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합니다. 셋째로, 일체성입니다. 즉 구별된 두 존재가 성숙한 사랑과 이해로서 영육간에 하나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만큼의 강한 결집력을 암시합니다(마 19:6).

우리들의 가정은 이렇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아담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는 어떠합니까? 서로를 위하며 먼저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우리들의 가정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크게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3:9)

본 단락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슬픈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주심으로 인간이 자의적으로 순종함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며 성숙한 인격체로 발전해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인간은 타락의 기회로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교만으로 인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죽음과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행위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교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됩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새해에도 성도들의 기청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되는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 (3:24)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은 각각 변명을 하며 하나님의 징벌을 모면하려 하지만, 모든 만물의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재요 심판자로서 범죄한 자들의 행위와 수량과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도구가 된 뱀을 가장 미친한 존재로 전락 시키시고, 그를 이용한 사탄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일컬어지는 메시아와 영원한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14, 15). 둘째로,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주셨으며 남편의 권위 아래 영구히 있도록 하셨습니다(16). 셋째로, 아담에게는 고통스러운 노동과 마침내는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류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그의 고통과 죽음은 곧 인류 전체의 고통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물의 관리자요 대표자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더불어 만물도 함께 고통받게 하셨습니다(롬 8:22).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24).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2:17).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 기도 / 하나님, 죄의 결과를 알게하셨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 (8:15)

우리는 본래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되어 있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죄에 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던 때에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지냈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죄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사실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들 중에는 무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만 내세우고 소리만 지르는 세상의 아버지들과 같지 않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천국 생활을 하며 과거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현재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 어떤 일일지라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나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 기도 /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당회원들에게 성령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4:5)

본문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형제 살해를 시작으로 해서 그후 전개되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죄가 또다시 죄를 낳는 무서운 타락사로 전락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은 이와같이 죄의 노예로 끌려갈 수 밖에 없었습니까?

첫째로, 가인은 죄인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3).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흘림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창 3:21; 히 9:22). 이것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7).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을 열납했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동생을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죄를 범한 후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9). 그러나 가인은 사실상 타고난 본성에 있어서나 행위에 있어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을 만큼 양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의 독성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이 땅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분열되어갈 뿐만 아니라 전쟁과 살인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또 한 명의 가인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성령충만하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충성된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이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 (29:1)

본문은 자연의 여러 가지 경이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18번이나 사용하였고 ‘여호와와 소리’라는 말을 7번 반복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뇌성(雷聲)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곧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우면서도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주위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오묘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참조, 막 13:28,29). 이러한 신앙인의 모습은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를 주는 뇌성과 같은 것들도 오히려 기쁨과 위로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11). 성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때마련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조성해서, 자연의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새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이 한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 기도 /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알게 하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새로 임명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 (4:20)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어떤 범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당신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창 4:9; 눅 15장).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의 회개케 하시는 음성을 듣고도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나”(16절) 인간이 주인이 되는 자기만의 세계를 꿈꾸면서 척박한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새로운 인간의 문명과 문화를 건설해갔습니다. 가인과 그 후예가 건설한 문화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감정을 바탕으로 한,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물신주의(物神主義) 사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것은 모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16).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그 분의 뜻대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한 것은 인간의 편리와 행복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쇠로 무기를 만들며 악기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피흘림이 요구되는 정복 사업과 압제 그리고 쾌락적인 삶에 탐닉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당시대의 폭력과 교만 및 타락상은 라멕의 노래(23,24절)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교만이 중국에 가서 파괴적이며 부패한 성향을 드러내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잠 16:18). 하나님을 제외시킨 문화와 문명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문명과 문화가 인간에게 참된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기도 /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의 새해 계획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5:1-3)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지적이며 인격적이고 자유의지를 가진 행위자로서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진실성과 종교적 성결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면서 다른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존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사람이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인지요, 그러나 타락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낳은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은 단지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았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자녀들, 전 인류는 겉모양만 서로 닮았을 뿐 사람이 본래 소유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복은 원리대로 쉽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연단과 시련의 풀무를 거쳐 정금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참 인간이라면 우리는 기어코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 4:19)

▶ 기도 /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모든 찬양대원이 거듭난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5:24)

성경에서 족보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뜻)이 새롭게 발전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이동할 때 족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는 간단한 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속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녀를 낳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고통의 산물만을 남기고 인간은 죽음의 허무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녹이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커다란 업적, 명예로운 일을 해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과 동행”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와 인격적 교제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된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행’에 실패합니다. 누구나 에녹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동행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당치 못함을 아시므로 성령은 보내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걸음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 기도 /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교회학교 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새롭게 맡은 반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배가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6:5)

런던에 살고 있는 네 살짜리 소녀가 잘못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을 다쳤습니다. 소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손목이 참 이상하게 꼬부러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소녀에게는 고통의 울음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통증을 조금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섯 살이 되었을 때 부모는 소녀가 다리를 절면서 다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병원에 가서야 비로소 소녀의 다리뼈에 금이 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토록 큰 부상에도 소녀는 통증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소녀에게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라서 더 이상 부주의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계속 부러지고, 다치고, 금이 가고, 불에 태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녀는 고통에 대하여 전혀 무감각하였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이상한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병을 오늘날에는 ‘겐글리뉴로파디’라고 부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치명적인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놀라운 질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 그것입니다. 죄를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경계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제동장치없이 사람은 악을 생각하고 실행하고 죄를 범하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통증이 있습니까?

▶ 기도 / 언제나 죄와 악에 대하여 민감할 수 있도록 나의 영을 깨워주소서. 각 교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부흥하는 복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 』(6:11)

바울은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였을 뿐 아니라 거룩함과 의로움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네 이웃을 사랑하되 네 몸같이 하라 하셨는데, 이 명령은 원래 우리와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까지는 천사처럼 살 수 있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 이후로 육심에 찬 육신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며 점차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쌓아야 하며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 나갑니다.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삶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 기도 /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남녀전도회를 통해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가 ……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6:22)

120년간의 일!!!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12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요즘의 길이로는 137m이고 2만의 배수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노아의 8식구가 오직 그일에만 매어달렸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 이상한 가족에 대하여 끊임없는 비방과 조롱으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내가 가능하였을까요? 적어도 노아가 보여준 이 인내는 비밀을 알게 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그의 심판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의 종족을 보존하시겠다는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이 노아로 하여금 당대의 모든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에게 공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때가 왔음을 깨닫고 그 방주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기회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잠겨버렸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마 13:11).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저들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 좁은 길로 인해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120년 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마 10:22)

▶ 기도 /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며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30:2)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새로 지은 궁전을 봉헌하면서 부른 찬송시라고 하기도 하며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청결케 한 후에 다시 봉헌하면서 불렀던 시라고도 합니다.

시의 내용은 다윗이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었으며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궁핍과 은총을 배부심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어려운 일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잠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끔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궁핍과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슬픔 대신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감사케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될 때에 잘되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은총 배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 기도 /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한 영혼들이 치료를 받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7:1)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만연된 죄악의 부패성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의 홍수를 퍼붓기 직전 하나님께서 긴급히 노아 일가족과 각종 동물들을 방주 속으로 대피시키는 장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 의인으로 인정받은 노아는 명령에 순종하여 부지런히 대피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대홍수로 온 인류와 동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사역보다도 방주 속에 생명들을 보존시키므로 홍수 이후의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일이 더욱 중요했기에 이처럼 홍수 직전에 방주 속으로 생명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을 나타내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변의 모습을 보면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곳곳에 부패와 죄악이 팍 차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노아처럼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습니다.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든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조롱과 비난을 견뎌내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만 믿고 살 때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통해 더 많은 현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7:21)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물만이 온 땅에 창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상황이며 그 다음에는 물이 더 많아져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상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더욱 창일함으로써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인 상황입니다. 불과 40일만에 엄청난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지에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오직 노아가 만든 방주 속에 있는 가족들과 짐승과 새들 뿐이었습니다. 불타는 듯한 진노 중에서라도 택한 자를 향한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본문의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록 더딜지라도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비난했지만 때가 이르매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 노아시대를 무색케 만드는 타락한 말세의 심판을 위해 이제 하나님은 불심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홍수 심판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불심판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늘 깨어 근신함으로써 구원의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 원하지 시 모두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에 지금도 심판의 때를 미루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기도 / 말세의 심판이 오기 전 항상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축복하시사 섬기는 교회가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 달 일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8:5)

본문은 40일 동안의 집중적인 폭우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점점 물이 감소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서 약 200일을 지낸 뒤에 물의 감소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바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방주 속으로 돌아오지 않고 방주 주위를 날아 다녔습니다. 이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앓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뒤 비둘기를 또 내어 보냈는데 저녁 때쯤에 감람 새싹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또 일주일 뒤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이 많이 감하여 저서 비둘기가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런 지혜로운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무사히 이끌 책임을 진 모세가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파견하여 형편을 알아보곤 하던 것과 비슷한 장면을 생각해 합니다. 여하튼 심판의 때가 지나고 회복의 때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물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지요,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물을 감하여 방주 속에 있는 생명들에게 새 삶의 터를 마련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과 승리의 삶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 기도 /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가 전개하는 교회당 건축과 선교센터 건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 』(8:20)

본문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노아가 오랜 기간 방주 속에 머물고 있다가 바깥 세계로 나왔을 때에 노아는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이며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다시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이런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신앙은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교만하여 예배를 잇을 때가 있습니다. 노아는 가족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부터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으며,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 예배(제사)를 드리다가 지혜와 부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적 주일예배도 소중히 생각하며, 가정예배와 개인의 예배적 삶도 소중히 생각하는 신앙을 갖도록 합시다.

▶ 기도 / 예배하는 신앙을 가진 노아처럼 저희도 항상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유대인 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성지연구소 건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 』(1:6) 사복

이제 겨우 걸음마를 단계를 벗어난 아이가 아버지랑 같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넘어질듯 넘어질듯 불안하게 걸어가면서 가끔은 돌에 걸려 아주 엉덩이질 만큼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이 아이의 손을 놓치지 않는 한 아무리 아이의 걸음이 서투르고 다리의 힘이 약하다 하더라도 아이는 땅에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보다 더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문제에 관한 한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도 과거 믿지 않을 때의 죄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죄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천국갈 때까지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혼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길거리에 혼자 내어놓는 아버지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함에 절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한번 택하신 그 뜻을 절대 번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을 기억하며서 우리의 나약함에 실망하지 말고 악함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 기도 / 날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게 하소서. 길림성기독교신학원 설립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북방선교의 문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9:6)

본문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해주시면서 생명의 귀중함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을 만드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고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살아서 다시 인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식물이 없던 상황이라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므로 약육강식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생명되는 피 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니까 금하시기도 하셨지만, 생명은 곧 피로 대표되기 때문에 가시적인 피를 먹으므로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풍조가 생길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교인들에게 피를 멀리하라 고 경계하였습니다(행 15:20).

오늘날 인명경시 풍조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 인권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주소서. 안식령 선교사(수리남)가 전개하는 현지인 선교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31:24)

본문은 다윗의 시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를 노래한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로 피하오니 ……”로 시작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결국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께 피할 수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5절)라고 의뢰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6절). 악한 것을 멀리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으로다”(21절)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대는 항상 어려운 환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믿고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의 상황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사랑답게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항상 어려움중에도 주님께 도움을 받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김은태 선교사(중국)의 광주, 심천 지역에서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 (9:12)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주신 내용입니다. 모든 언약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비롯한 인간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기로 했습니다. 무지개는 곧 언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들의 죄악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용서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인간들을 이 땅에서 홍수로 멸하신 것을 생각하며,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잘 섬길 생각을 하라는 권고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지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계 역사가 이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멸망당합니까? 불로써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벧후 3:1-7). 그 증거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언약의 내용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믿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롬 8:39).

▶ 기도 /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선교 사역을 통해 일본인들의 마음에 우상숭배의 죄악이 뿌리뽑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9:20)

본문은 노아의 후반부의 생애 중 술취한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구속사의 진전 방향을 가늠케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노아의 술취함으로 말미암은 노아의 실수를 다룬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노아의 세 아들의 특성이 드러나고 그에 따라 노아가 각각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즉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았던 노아일지라도 잠시 잠깐의 방만한 자세가 곧 바로 실수와 죄악으로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은 타락 이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죄악된 심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롬 3:9-10). 따라서 오늘날 은혜받은 모든 성도들은 노아의 실수를 신앙 간증으로 삼아 매사에 더욱 근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노아는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구속의 사역을 인류의 역사를 통해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술취한 모습이나 이로 인해 추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실수나 허물을 덮어주는 공경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죄악과 수치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경건의 힘쓰는 부모가 되고, 자녀들의 실수와 허물 앞에서 저주하지 않고 말씀과 삶의 본을 통해서 축복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우리들이 술과 세상에 취하여 죄악에 빠지지 않고 경건에 힘쓰게 하소서. 김형선·한영자 선교사(뉴질랜드)의 문서선교, 외향선교가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10:1)

홍수 이후에 온 땅에 편만한 인류의 모든 종족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언급한 후에 본문에서는 노아가 저주한 함과 축복한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라고 축복한 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연안으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면서 도처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족상 야벳의 후손들은 오늘날 유럽인의 대종을 이루는 인도 유럽계 또는 아리안족을 형성하였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나일강 유역과 고대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기름진 땅과 광활한 영토, 많은 종족과 강건한 체력 등을 자랑하면서 번영과 풍요를 구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과 더불어 함의 후손들은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 술한 정복과 지배를 당하면서 점차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함의 후손에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가는 신실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정의 제사장인 노아가 자녀에게 저주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녀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로서 먼저 자녀들에게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경건과 기도의 부모가 되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기성·박정아 선교사(호주)가 현지 적응을 잘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들은 썸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10:31)

죽보 기술상 썸의 후손들이 맨 나중에 언급된 이유는 향후 구속역사의 주역이 될 썸의 후손들에게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찍이 노아가 “썸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썸의 후손에게 예언적 축복이 성취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썸의 후손 중 히브리 족속이 나왔고, 그 족속으로부터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써 명실공히 썸의 후손들은 구속사적인 종교적 특권을 누린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성경 족보는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첫째로는 모든 족속의 뿌리가 노아의 세 아데에서 부터이며 나아가서 아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로는 일찍히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바 메시아 혈통의 추적과 기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담 이후로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한 썸의 후손에게 노아가 예언적인 축복을 함으로 구속사의 주역이 되고 메시아 탄생의 족보를 이루는 축복과 영광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의 어떤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경건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복하고, 자녀를 신앙의 본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축복하여 번성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기도 /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번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은빈 선교사(케냐)가 전개하는 맛사이족 선교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보라 우리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 』(15:51-53)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애쓰고 또 애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나약함과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남을 사랑하고 남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간절하지만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죽은 사람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화 과정도 바로 이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때 완전히 거룩해지고 우리 속의 악함이 다 없어지고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생각하는 것부터 느끼는 것,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됩니다.

또한 이때에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에 굴복하며 탄식하던 자연 만물들도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며 죄와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게 하소서. 김철영 선교사(일본)가 전개하는 오사카영광교회와의 협력사역을 통해 일본이 하루 속히 복음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신 고로 그들이...』(11:8)

본문은 인류의 번성 과정중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한 특별한 사건을 다룬 장면으로서, 곧 바벨탑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바벨탑 건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그릇된 야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만과 허영의 탑이었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하나님은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인간들은 바벨탑 건축을 중단하고 세계 도처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뜻에 반대되는 인간들의 모든 야망과 이상은 마치 허영의 바벨탑 같이 허무한 것이어서 결국 무너지며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리석은 공모와 도모를 심판하시는 동시에 때로 그것을 당신의 사역과 섭리의 한 방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은 교만의 바벨탑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인류를 온 땅에 편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무엇을 위해 하나되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 내 힘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육신과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바벨탑을 쌓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기 전에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어 천국의 상급과 이 땅에서의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의와 선이 탑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 기도 / 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바벨탑을 중단하고 천국의 상급과 형통의 삶을 위해 하나되어 힘을 모으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김영대 선교사(중동권) 위에 함께 하시사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 악을 사하셨나이다』(32:5)

본시는 51편과 함께 다윗의 일생 일대의 실책, 곧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불의한 방법으로 강탈한 사건을(삼하 11장) 배경으로 한 과거 회상적인 시입니다. 본시는 회개와 함께 감사(3-8절)와 지혜(1, 2, 9-11절)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시의 내용은 신자들이 누리는 축복(1, 2절)은 슬픔, 죄의 고백 및 사죄 등의 과정을(3-5절) 전제로 하며, 사죄의 경험은 신자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며(6, 7절) 하나님의 교훈에 귀기울이도록 만듭니다(8-1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초대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본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서 제외될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인간의 첫단계입니다. 둘째,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인간 파멸의 주범이며 참된 행복을 가로막는 인류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의 죄를 단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백하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 죄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생활 속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며, 죄를 지어도 올바르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돕고 있는 모든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아브람과 ……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11:31)

본문은 부패한 인간의 교만을 다룬 바벨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즉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람의 역사성과 그의 등장에 얹힌 역사적인 배경 및 선택 과정 등을 다룸으로써, 그를 중심으로 엮어져 갈 인류 구속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앞의 내용(1-9절)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브람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고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상거래의 중심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변의 많은 우상들이 수입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아브람의 가정 역시 이러한 우상의 영향권 아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데라는 아람 출신으로서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문화에 젖은 그에게 새 역사의 주체가 되는 영광을 강권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했을 뿐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기 위해 아브람이 지닌 과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특수한 훈련장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아브람은 이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결연히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거룩한 가계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합시다.

▶ 기도 /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나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장애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12:1)

본문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더불어 구속사의 일대 전환기를 이루는 아브람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 건설을 실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람을 택함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관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으로부터 한 가문, 한 민족 그리고 온 인류에 이르는 점진적 선택과 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개인을 통해 성취될 인류 구원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선택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와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 그에게 세 가지(본토, 친척, 아버 집)를 청산하게 하셨으나, 곧이어 그에 상응하는 세 가지(땅, 민족, 복)를 약속하심으로 당신의 일에 동참한 자를 향한 다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 아브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당신의 공의의 법에 따라 저주하실 뿐 아니라, 반면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람을 통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3절). 결론적으로 아브람의 가계에서 나실 메시야는 인류의 복의 원천으로서, 누구든지 그를 믿고 순종하면 복의 은혜를 누리지만 그를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를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번 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바라며 2월을 맞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 역 예 배 공 과

구역예배 순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
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7 과

구원의 다섯번째 단계는 양자이다

· 요 절 : 로마서 8장 15절

『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양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가 믿기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믿은 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린다는 말이다.

양자됨과 중생의 관계

중생이란 영적 출생을 말하고 양자되는 것은 출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됨과 칭의의 관계

양자가 되는 것은 한마디로 칭의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이다.

양자됨과 성화의 관계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획득하는 것이고 성화는 그 신분
에 걸맞는 영적 변화를 말한다.

양자의 기업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될 때 양자로서 법적인 신분을 얻
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 양자의 기
업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율법의 형벌에서 해방되고, 현재
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며, 미래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 육체의 부활은 물론 주님과 함께 영광과 영생을 얻게
된다.

제 18 과

구원의 여섯번째 단계는 성화이다

· 요 절 : 고린도전서 6장 11절

『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

성화란 말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역사로 죄의 부패에서 떠나 성결케 되는 것을 말한다.

성화의 내용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도덕적 수련이나 의지에 의해 하나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이다. 성화의 모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화가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으며 부활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점이다.

성화의 세 단계

성화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때 원리적으로 성화되며, 둘째 성화는 점진적으로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며, 셋째 성화의 마지막 완성은 죽은 다음 부활 때에 일어난다. 이때에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 단계인 영화의 단계로 이어진다.

성화의 네 가지 방편

성화의 방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 둘째 성례, 셋째 성령의 역사, 넷째 기도의 생활인데 우리는 이 방편들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간다.

성화의 선행의 관계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선행이다. 이 선행은 불신자들의 선행과는 다른 영적인 선행이며 성도의 선행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한다. 첫째 그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데 있고, 둘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비롯된 선행이며, 셋째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선행이어야 한다.

제 19 과

구원의 일곱번째 단계는 견인이다

· 요 절 : 빌립보서 1장 6절

『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

장로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견인 교리이다. 견인이란 인간 구원 문제는 인간의 신앙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重生하고 현실적인 성화에 있어서 퇴보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영원히 멸망받는 일은 없으며 항상 은혜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장로교 교리 10대 원칙

견인교리에 대한 반대들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견인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모순되며, 둘째 견인 교리를 강조할 경우 신자들을 태만과 방종으로 인도하며, 셋째 배교에 대한 성경적 경고와 모순되는 동시에, 넷째 성화에 대한 성경의 권면과 모순된다는 것이다.

견인교리를 주장하는 이유

그러나 이런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신약에만도 요10:27-9, 롬11:29, 빌1:6 등에서 견인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장로교회가 이 교리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첫째 선택교리 때문에, 둘째 하나님의 구속약속 때문에, 셋째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사역 때문에, 넷째 성령의 역사 때문에, 다섯째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교리는 바로 예정교리의 연속이며 결과이다.

제 20 과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이다

· 요 절 : 고린도전서 15장 51-53절

『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

영화란 구원의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단계를 말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영화의 시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영화롭게 되는가? 첫번째 영화는 죽을 때 온다. 성도가 죽을 때 그 영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죄의 세력에서 완전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육신은 무덤에 남아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시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몸, 즉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완성된 영화이다.

영광스러운 몸이란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서 입을 영광스러운 몸이란 부요, 권세, 지위를 소유한 사람의 몸, 또 초자연적인 광채나 존귀함을 지니는 몸을 말하는데 한 마디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맞는 몸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때인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영화란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며 피조계 전체가 새롭게 되는 사건과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화는 인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고대하며 기다린다.

MEMO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 봉독 사 회 자
- 3) 메 시 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